

광주·전남 학업 중단 고교생 매년 1700명

작년 무단결석 학생도 973명 학교부적응·홈스쿨링 등 이유 내신 관리 실패 검정고시 전환도

지난 2017년 광주·전남에서는 고교생 973명이 학교를 무단결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유는 학교부적응이 가장 많았다. 아예 학업을 중도 포기(자퇴)하는 고교생도 광주·전남에서만 매년 1700명 가량 쏟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무단결석 고등학생은 전국에 걸쳐 모두 2만 1509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연속 7일 이상 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그 사유로는

학교부적응(학업 및 교우관계 어려움 등) 1만2661명, 홈스쿨링 223명, 해외출국(유학 등) 157명, 대안교육 118명이었다. 기타 사유로 무단결석한 이는 8350명으로 조사됐다. 여기에는 가정문제, 검정고시를 이유로 무단결석한 이들이 포함됐다. 무단결석자 가운데 1만7303명은 일정 기간 이후 학교로 복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무단결석 고교생은 경기도가 6863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울 3470명, 강원 1200명, 인천 1912명, 부산 1132명, 대구 977명, 경북 957명, 경남 898명, 전북 818명 순이었다. 광주는 240명, 전남은 733명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무단결석자 사유는 학교부적응 67명, 해외출국 2명, 대안교육 1명 기타 170명이었다고 이 가운데 41명은 이후 학교

로 되돌아왔다. 전남의 경우 학교부적응 514명, 홈스쿨링 6명, 대안교육 5명, 기타 514명이었고 이 중 434명은 학교로 복귀했다.

이날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무단결석을 넘어 학업을 중도 포기하는 학생도 매년 1700명 안팎으로 나타났다.

광주 학업중단 고교생은 지난 2015년 820명(전체 6만3937명의 1.28%), 2016년 816명(6만2357명의 1.31%), 2017년 820명(5만8976명의 1.39%)이었다. 2017년 기준, 자퇴는 770명, 퇴학 39명, 제적 7명, 유예 4명이었으며, 자퇴만 놓고 보면 학교부적응 285명, 해외출국 74명, 질병 30명, 가사 5명, 기타 376명으로 집계됐다.

전남 학업중단 고교생은 지난 2015년

883명(전체 6만8407명의 1.29%), 2016년 880명(6만6973명의 1.31%), 2017년 903명(6만3631명의 1.41%)으로 파악됐다. 2017년 기준, 학업중단 사유로는 학교부적응 360명, 해외 53명, 질병 49명, 가사 28명, 기타 390명이었다. 품행, 학적 위반 등의 이유로 퇴학 조치된 학생은 매년 20~30명 수준이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기타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니던 학교에서 내신관리에 실패, 검정고시로 전환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시·도교육청은 학업중단자 발생을 예방하려고 최대 7주까지 결석을 허용하는 학업중단숙려제도를 운영 중이며, 교내 대안교실을 만든 곳도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다문화가정 추석명절 체험 20일 광주시 서구 서창향토문화마을에서 열린 추석명절 체험행사서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송편 빚기와 강강수월래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지방선거 불법행위 신고 3명 전남선관위 포상금 1200만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신고한 3명에게 모두 1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20일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가 합동 연설·대담에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것을 신고했다. 선관위는 조사 후 검찰에 예비후보를 고발해 지난 8월 기소했다. 포상금은 670만원이다.

B씨는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 조작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370만원을 받게 됐다.

C씨는 마을 회관에서 주민 17명에게 15만원 상당 음식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해 포상금 200만원을 받는다.

신고나 제보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제보자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교대 총장 후보자 또 '부적격'...세차례 연속 퇴짜

교육부 1·2순위 후보자 임용 제청 거부...네번째 총장 찾기

총장 장기 공석 중인 광주교대가 추천한 총장 1·2순위 후보자 2명이 교육부로부터 임용제청을 받지 못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열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광주교육대 총장 후보자 2인을 '임용 제청'하지 않기로 하고, 최근 두 후보에게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는 "임용 제청하지 않은 사유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으나,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교육대 총장 후보자 1순위 후보 A교수는 교육부 추천 직후 과거 외국인 교원학생과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피해자가 해외에 있어 접촉할 수 없는 등 수사 단서가 없어 내사

결정됐지만, 교대 측은 자체적인 진상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교육부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이번 총장 후보자 2인마저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연속으로 3번째 총장 후보자 추천이 좌절됐다. 2016년 8월 이후 2년 넘게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등 교육행정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교대는 간선제 방식의 총장 선출 규정에 따라 2016년 8월 11일 20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들의 선거를 통해 제7대 총장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임용이 거부됐다. 이후 2017년 11월에도 1, 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으나 또다시 '임용 거부' 판정을 받았다.

연속 3번째 총장 후보자 추천이 무산돼 광주교대는 다시 총장추천위를 소집해 총장 후보자를 다시 뽑아야 할 상황이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당분간 대학은 교무처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하며, 다시 총장 후보자를 선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9 달뜨기 16:36
해질 18:32 달짐 02:24

가을비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 한때비	20/24	보성	흐리고 한때비	19/22
목포	흐리고 한때비	21/24	순천	흐리고 한때비	20/24
여수	흐리고 한때비	21/23	영광	흐리고 한때비	20/24
나주	흐리고 한때비	20/24	진도	흐리고 한때비	21/24
완도	흐리고 한때비	21/24	전주	흐리고 한때비	20/23
구례	흐리고 한때비	19/23	군산	흐리고 한때비	20/23
강진	흐리고 한때비	20/24	남원	흐리고 한때비	20/23
해남	흐리고 한때비	20/24	흑산도	비온뒤 맑	21/24
장성	흐리고 한때비	20/23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 (m)	풍향	파고 (m)
서해 앞바다	남서~서	0.5~1.0	서~북서	0.5~1.5
남해 앞바다	남서~서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남서~서	0.5~1.0	서~북서	0.5~1.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남서~서	1.0~2.5	서~북서	1.5~2.5

◇생황지수

위험	보통	좋음
☁	☀	☀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5:34	11:43
17:23	--:--	
여수	01:12	06:53
	12:55	19:37

◇주간 날씨

22(토)	23(일)	24(월)	25(화)	26(수)	27(목)	28(금)
☀	☀	☀	☀	☀	☀	☀
19/27	15/25	15/25	13/25	14/25	14/25	14/25

오늘까지 가을비...추석연휴는 대체로 맑음

올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 수 있겠다.

20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추석인 24일 밤 광주·전남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이 끼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21일 오후까지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광주·전남에 산발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이날 남해안을 제

외한 광주·전남의 예상 강수량은 10~40mm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까지 광주·전남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추석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교통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돼 귀성·귀경길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

북구의회 "문화전당, 5월 단체 구상권 청구 철회하라"

광주 북구의회가 20일 성명서를 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측에서 검토 중인 5월 단체에 대한 구상권(광주일보 2018년 8월30일자 1면)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북구의회는 성명서에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은 건립은 5·18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전남도청의 보존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방안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며 "옛 전남도청의 보존에 대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또다시 5·18 역사가 왜곡될 수 있음을 5월 단체가 우려해 접거 농성에 돌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5월 단체의 전남도청 별관 점거

는 사실상 5·18 역사의 시간과 공간을 지키기 위해 불가결한 행동이다"고 구상권 철회를 촉구했다.

최근 구상권 청구 검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진 상황에서 북구의회도 최경영 의원의 제안으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5월 단체의 옛 전남도청 별관 점거 농성으로 시공사에 지급한 공사 지연 배상금 110억 원에 대한 구상권을 5월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착한보청기협동조합

보청기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갈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